

영암 무화과 가공식품으로 꽃피우다

기억력·성인병 효과 입증...잼·식초 등 인기 전국 생산량 70% 차지...年 200여억원 수입

영암 무화과가 전남을 대표하는 과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는 영암 삼호 무화과는 최근 3~4년 새 병충해 통제를 통해 전국적인 판로를 확보한 것은 물론,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되면서 지역을 벗어나 전국으로 뻗어나가고 있다.

20일 영암군 삼호농협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00여 농가가 300ha의 면적에서 무화과나무를 재배하고 있으며 연간 4000여t의 무화과를 생산, 200여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무

화과는 갈습과 섬유소, 필수아미노산 등이 풍부하고, 콜레스테롤 제거와 당뇨병 치료, 고혈압 등 성인병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물러지기 쉬운 과육 특성 탓에 그동안 전남 인근에서만 소량만 판매가 이뤄져 왔었다.

하지만 지난 2007년 정부의 클러스터 사업 지정으로 유통센터가 설립되고, 대형유통업체의 계약재배 등이 성사되면서 무화과 판매는 전성기를 맞게 됐다. 실제 지난 9월 이마트가 100t의 영암산 생무화과를 당일수확,

당일배송으로 전국에 판매한 결과, 5일 만에 모두 완판되기도 했다.

이에 더해 영암군은 무화과 클러스터사업단, 삼호농협을 중심으로 무화과 가공공장을 설립하고 잼과 즙, 양갱, 통밀건빵, 비타민 등 다양한 가공식품을 개발해 출시했다. 또 주요 식품기업들과 무화과 가공식품 개발에 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표식품은 사업단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최근 무화과 식초와 무화과 효초 음료를 개발, 지난 8월 발효식초 음료인 '백년동안 무화과 효초'와 '무화과 순발효 식초'를 출시했다. 대표 식품에 공급되는 영암 무화과는 연간 320t 규모로, 농가 소득만 10억원에 이른다. 중간식품도 무화과 음료를 개발, '자연은' 시리즈를 통해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자연은 무화과'는 무화과와 석류를 혼합해 여성들이 좋아

하는 맛을 낸 것이 특징이다. 가공식품 중 사업단이 자체 개발한 무화과 양갱(55g)은 생과 함량이 41%에 달해 가장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불과 3~4년 전만 해도 영암 도로변을 중심으로 농가에서 직접 나와 판매하던 무화과는 판매량 확보와 가공식품 개발로 이제 노점을 찾기 어려운 과일로 변신했다. 판매가 확대되면서 농가수입은 3년 전보다 2배 가량 늘었고, 재배농가도 증가 추세가 있다는 것이 삼호농협측의 설명이다.

삼호농협 관계자는 "영암은 1971년부터 무화과를 생산, '꽃은 품은 영암 무화과'라는 브랜드로 판매해 왔다"며 "최근에는 수확물량이 떨어 영암은 물론, 해남과 신안지역까지 재배농가가 급속히 늘어갈 정도로 고소득 작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임동룡기자 exian@kwangju.co.kr



호남 유일의 낫산 판매장인 '낫산 광주전시장'이 20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에서 문을 열었다.

“큐브같은 튀는 모델로 승부”

광주전시장 방문 켄지 나이토 한국낫산 사장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나이토 사장은 1985년 낫산자동차에

“광주는 독특한 색깔을 가진 도시입니다. 인권·민주 도시이자 기아차라는 향토기업이 있는 자동차 도시입니다. 호남 유일의 딜러인 프리마모터스와 협력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마케팅을 펼쳐주세요.”

20일 문을 연 호남 유일의 낫산 판매장인 '낫산 광주전시장'을 방문한 켄지 나이토(49) 한국낫산 대표이사사는 “이미 성장한 수도권이나 부산과는 달리 호남은 잠재력이 큰 수입시장”이라며 “큐브와 같은 특별한 모델로 시장을 공략하겠다”고 말했다.

나이토 사장은 “낫산이 한국에

진출한 지 2년이 지났다”며 “한국은 수준이 높고 섬세해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시장으로, 특히 세단보다 큐브와 같은 특별한 모델이 성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한국시장의 판매 목표를 5000대로 잡았다. 특히 지난 8월 출시한 박스카 ‘큐브’는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인기가. 차를 받기 위해 2000여명이 줄서 있다. 지난 달 605대가 판매됐고, 매달 900대 정도 주문이 들어오고 있다.

그는 “오늘 문을 연 광주전시장에만 50대가 이미 예약돼 있다”며 “전시장이 있는 광주 고객들에게

입사에 낫산태국 부사장, 낫산글로벌 중남미총괄책임자를 역임하는 등 탁월한 리더십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한편, 호남 유일의 낫산 공식 딜러인 '프리마모터스'는 광주시 동구 대인동 롯데백화점 건너편에 총면적 1429㎡ 규모의 광주전시장 및 서비스센터를 개설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패딩에 어울리는 가방 사세요

광주신세계 백화점 키펀링 매장에서 올 겨울 신상품 모델인 '줄라', '카스카' 가방을 선보인 가운데 고객들이 가방을 구경하고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광주·전남 9월 무역수지 2억5000만달러 흑자

광주·전남 지역의 9월 중 무역수지가 2억5000만달러의 흑자를 기록했다. 20일 관세청 광주본부세관이 분석한 '2011년도 9월 광주전남지역 수출입 통관실적' 분석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9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22% 증가한 44억1400만달러, 수입은 25.9% 증가한 41억6400만달러로 무역수지 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광주의 수출은 13억2700만달러로 전년 동월대비 37.6% 증가했으며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11.7% 감소한 4억500만달러로 9억2200만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품목별 수출은 수송장비(41%), 반도체(19.6%), 종이 수출을 주도했으며 국가별로 전년 동월대비 캐나다

(12.1%), 홍콩(21.7%), 싱가포르(3.2%)는 감소했으나 중국(84.4%), 호주(51.3%) 중동(21.7%)의 수출은 증가했다.

광주의 수입은 전기·전자, 경공업 원료 순이며 중국, EU, 동남아는 증가했으나 일본, 대만은 감소했다.

전남의 수출은 화공품(37.7%)과 석유제품(32.7%) 수출에 힘입어 전년 동월대비 16.3% 증가한 30억8700만달러, 수입은 전년동월대비 31.9% 증가한 37억5900만달러로 무역수지 2억5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국가별로 동남아(61.7%), 중국(8.6%)의 수입이 증가했으나 일본(16.4%) 수입은 감소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차보험료 연내 인하 없을듯

겨울 변수 많아 내년 초 검토

올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개선됐으나 연내 자동차보험료 인하로 이어지는 양을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손해율 개선 추세가 올해 겨울에도 지속하면 내년 초에 자동차보험료를 소폭 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

20일 금융감독원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개월째 70%대를 유지함에 따라 자동차보험료 인하 요인이 생겼지만, 겨울철에 폭설 사고 등 변수가 많아 손보사들이 올해 보험료를 내리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올해 1월에 83.5%에 달했으나 2월에 74.2%, 3월에 72.4%, 4월에 72.

7%, 5월에 74.1%, 6월에 73.3%, 7월에 77.6%, 8월에 75.7%, 9월에 74.1%로 70%대를 줄곧 유지해왔다.

오프라인 대형 손보사는 차 보험 손해율이 70~72%, 온라인 손보사는 76% 정도가 돼야 적자를 겨우 면하는 구조다. 따라서 손해율이 70%대 중반을 넘어서면 보험을 아무리 많이 팔아도 적자만 생기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손보사들의 차 보험 누적 손해율을 보면 삼성화재(70.4%)와 현대해상(72.1%), 동부화재(73.1%) 등 대형 오프라인 업체는 70%대 초반으로 인하 여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AXA손해보험(79.5%), 하이카다이렉트(79.5%) 등 온라인 업체는 여전히 고전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서울우유 200원 인상안 거부

“농협 수준 맞춰달라”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 할인점 3사가 흰우유 소매가를 ㄹ 당 200원 올려달라는 서울우유의 우윳값 인상안을 거부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대형 할인점 3사는 서울우유가 지난 18일 각 유통업체에 통보한 우윳값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면서 “1ㄹ 들이 흰우유 소매가가 2300원을 넘지 않도록 재조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우유는 각 유통업체에 통보한 우윳값 인상안을 통해 납품가를 ㄹ 당 138원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일선 매장에서 파는 소매가는 ㄹ 당 200원 정도 올리도록 권고한 바 있다.

애초 서울우유 측 인상안대로라면 현재 할인점에서 2150원인 1ㄹ 들이 흰우유는 오는 24일부터 2350원으로 9.3% 오르게 되지만 대형 할인점 3사는 이 같은 인상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부하면서 사실상 납품가를 더 낮추라고 요청한 것이다.

대형 할인점 3사의 이 같은 대응은

지난 19일 농협 하나로마트가 우유 소매가를 서울우유 권고안을 따르지 않고 2300원으로 7%만 인상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형 할인점 관계자는 “업체 측 성장 ‘최저 가격’을 표방하고 있는 할인점이 농협보다 비싼 가격에 우유를 팔 수 있겠느냐”며 “1ㄹ 들이 소매가를 2300원 수준으로 맞출 수 있도록 해달라”고 서울우유에 인상안 재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형 할인점 3사의 이 같은 태도에 서울우유는 곤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서울우유 관계자는 “이번에 일선 매장에 통보한 ㄹ 당 138원 인상안은 원유가 인상분만 적용한 최소한의 인상폭”이라며 “이를 더 낮춰달려면 우리는 손해보고 팔라는 얘기”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대형마트 3사가 1ㄹ 들이 흰우유 소매가를 농협 수준인 2300원으로 맞추려면 서울우유가 납품가를 더 낮추든지, 아니면 유통업체가 유통마진을 더 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법을 택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기업환경 세계 8위

전년보다 8단계 상승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이 세계 183개국 중 8번째로 좋은 것으로 평가됐다.

교역과 채권회수, 자금조달 부문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재산권 등록과 투자자 보호 등은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지적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세계은행의 '2011년도 기업환경 평가'(Doing Business) 결과 우리나라의 종합순위가 작년보다 8단계 상승한 8위를 기록해 최초로 10위권 내로 진입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코스피지수	1,805.09 (-50.83)
코스닥지수	469.98 (-18.19)
금리 (국고채 3년)	3.44% (-0.01)
원·달러 환율	1,145.00원(+13.10)

*수치는 전일 증가 기준

예약접수 중

선배합격자가 말한다!

개강: 11월1일

2012년 공무원 시험준비는 무조건 한빛고시학원에서 시작하라!

9급 공무원 시험 [국·영·수] 최다 합격! 분명한 강좌! 최고의 시설!

수강자 전원 반복학습 동영상 강의를 지원함으로써 100%학습증대와 경제적인 학습효과를 누려보십시오

7급 중합반 9급 중합반 법원시기보 7:9 검정직 영·수·영(전문) **한빛고시학원** 전문 부서관 9급 야간반 농업직/기술직 사회복지직 명품 강연대회

공무원 합격의 대세, 압도적 1위! www.hanbitgosi.co.kr **한빛고시학원** 광주 전남대 후문 북구청앞 (062)234-0234